



김호정 엘리사벳 | 영화배우

| 길이 주는 선물

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저도 호기심에 순례길 여행을 열떨결에 결정해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산티아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십 년이 지났지만 제게는 늘 어제 일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. 초반에는 이 쫓아야 거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리하게 빨리 걷다가 이틀 만에 제 발목은 허벅지만큼 두꺼워졌습니다. 한 걸음도 고통 없이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여행을 시작한 지 삼일 만에 자신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비로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고행과도 같은 여행이란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. 가방의 무게를 덜기 위해 다시 옷가지와 음식과 생수, 모든 것들을 최소화하고 나니 실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등에 짚어진 무게만큼 고통이 따른다는 단순한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. 욕심을 버리고 자만함도 없애니 뻗뻗하게 세웠던 제 고개는 수그러지고 걸음도 천천히 보폭도 짧게 변하면서 그 여행의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. 끝없이 펼쳐진 들판의 모습에 질려서 고개를 숙이고 오늘의 목적지를 잘 도착하는 바람뿐 제 머릿속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온통 다리가 아프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. 여행 전 복잡한 문제들은 머릿속에서 꺼낼 여유조차 없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 아픈 다리를 이끌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.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아름다운 풍경이

제 시야에 들어오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‘어차피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아프고 힘들 거야. 그러니 아프다고 그만 외치자. 무릎 밑의 고통에 대해선 그냥 받아들이자.’ 그렇게 맘먹고 나니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과 마음을 채우며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. 여전히 발목은 아파서 눈물은 볼을 타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제 입가는 미소로, 제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. 그렇게 산티아고 길을 걸었습니다. 타들어 가는 태양에 눈물 자국이 두 줄로 선명하게 제 얼굴에 자리 잡았을 때 즈음 어느덧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도착했습니다.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, 저는 그때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여행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.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감사하다는 몇 마디를 드리자 갑자기 의식도 않던 고백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제 입을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여행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한 그 옛날의 잘못을, 기억에서 물어버리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 다.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그때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미 제 안에는 성령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몰랐었지만 어쨌든 이미 그 순간부터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.



축성과 축복은 어떻게 다른가요?

축성은 ‘봉헌하여 거룩하게 만든다’는 의미인 consecratio를, 축복은 ‘좋은 말을 하다’는 의미인 benedictio를 번역한 말입니다. 미사 때 사제의 축성으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됩니다. 그리고 성품성사, 주교품 예식, 성당 축성 등에서 축성이 이루어집니다. 이 경우엔 사람이나 사물이 축성의 대상인 것이죠. 축복도 사람이나 사물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. 사람에게 안수하든지, 성물 등에 성호를 그으며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지요. 축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성직자들에게만 있습니다. 하지만 축복은 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.

글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| 바오로딸 발행